

3월 2주차 Q&A — 유동성 회복기 자산 상승 순서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시나리오

· 정리 2026-05-15

3월 2주차 Q&A — 유동성 회복기 자산 상승 순서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시나리오

Part 3-1강(2026-03-06) 직후 Q&A 시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감사 응답을 정리한다.

- **질문 1 (노래하는 사자님):** 5월부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을 확대하면 자산 가격은 어떤 순서로 오를까? - **질문 2 (이제시작TJ님):**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 분석 및 의견

AI 파트는 한 달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시장이 시트리니 보고서로 출렁이면서 긴급 다룬다.

베센트의 치밀한 계획 — 5~10월 유동성 살포

먼저 정치권 재정 지출 패턴을 짚는다. 어느 나라나 똑같다 — 선거가 상반기에 있을 때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몰아 쓴다. 진보·보수와 무관하다. 1년 세출은 정해져 있으니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지만, 언제 쓰느냐는 정권 재량이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계획은 **11/3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승리를 돕기 위한 치밀한 설계**다.

- 5월 이후 국제 발행 ↓ (지금 미리 마련해 둬) - 재정 지출을 5~10월 사이 집중 → 10월 직전까지 미국 경제 좋아 보이는 착시 - 1년 세출 고정 → 지금의 지출은 줄여 놔서 추가 비실비실

이 멋진 계획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 **이란 전쟁**이다.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엡스타인 사건 +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몰리자, 베센트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란을 침공했다.

이란 전쟁 = 게임 체인저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급등 → 인플레이션 발생.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안 떨어졌으나 에너지 가격이 싸기에 미국 인플레이가 잡힌 듯 착시였다. 유가가 오르면 신선 식품도 에너지로 생산·유통되니 물가 전체가 올라간다.

호르무즈 해협 마비(봉쇄 X)는 가능하다. 이란이 봉쇄할 힘은 없지만, "지나가는 유조선들 몽땅 불태우겠다"고 경고만 해도 마비 가능. 선사가 유조선 한 척 잃어도 데미지가 너무 커서 못 지나간다.

미국 보호 능력 — 미국 구축함은 사실상 6척만 가용. 다 수리 중인데 드라이독이 없어 수리 안 됨 (미국 조전 산업 붕괴). 그중 2척은 홍해, 최대 4척이 호르무즈. 유조선 하루 수백 척 지나가는데 4척으로 전부 보호 불가. 트럼프의 "미국이 보험 들어줄 거야"는 가짜라는 걸 누구나 안다.

장기화 시 유가 **120~150달러**. † 1

물가가 오르는데 베센트가 5월부터 재정 지출을 퍼부으면 **물가 상승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 베센트 계획의 발동 여부는 전쟁이 장기화될지에 달렸다.

자산 상승 시나리오 두 갈래

전쟁 단기 종료 (4주 내) — 베센트 계획 그대로 발동

시점	결과
5월	TGA 풀림 → 유동성 확대
자산 순서	비트코인 → 주식 → 금 순 상승

전쟁 장기화 — 전쟁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

자산	방향	이유
달러 인덱스	첫날 상승 → 진행되면 하락	초기엔 달러 확보, 진행되면 천문학 재정 지출 우려
금	O (상승)	달러 가치 녹아나기 분명
미국 국제 금리	상승 (국제 가격 하락)	부채 ↑ → 추가 발행 → 시장에서 못 사줌
비트코인	△	미국에 종속된 로컬 자산화
주식	X (약세)	금리 상승 + 물가 상승 모두 악재

전쟁 초기 — 모든 기업이 "달러 확보해" 모드 → 달러 인덱스 ↑ + 금값 첫날 급락. 그러나 진행되면 미국 재정 지출 우려가 달러를 끌어내린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금값과 금리 동행** —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같이 오른다. 이유는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빛으로 전쟁 하면 더 많은 국제 발행 → 금리 ↑ → 금도 동시에 ↑.

비트코인은 세모인데, 이는 옛날엔 글로벌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종속된 로컬 자산**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나스닥 상승 시 비트코인 상승 경향이 강하다.

시트리니 보고서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2월 23일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신생 업체**의 보고서로 AI 관련 공포 투매가 발생했다. 신생 업체 보고서 하나로 AI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닷컴 트라우마의 깊이를 보여준다. † 2

한국에는 충격이 없었다. 1998 IMF 외환 위기 때 닷컴 버블을 사실상 경험 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증권맨에게는 닷컴 공포가 없고 "AI에 무슨 버블이야, HBM 계속 가" 식의 왜곡된 보고서가 많다. 감사 본인은 당시 경제부 기자로 보도해 충격이 너무 생생하다.

시트리니 보고서 시나리오 — 확정 vs 미확정

항목	감사 판단
AI가 인터넷·스마트폰처럼 필수화	확정
기업 소프트웨어 대체	확정
스테이블코인 결제 폭발	미확정
카드사·은행 몰락	미확정
컨설팅 줄도산	확정
사무직 대량 감원	확정
2028 대형 금융 위기	미확정

시트리니 보고서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 예측 못 한다. 1980년대 "2000년 하늘 나는 자동차" 예측은 빗나갔고 대신 IT와 AI가 먼저 왔다.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기업 소프트웨어 대체의 의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기업 SW는 **ID당 과금**으로 떼돈 번다. 그런데 AI 시대엔 기업이 **AI ID 하나로 모든 처리 가능** — 영상 창출·편집·ERP·경영 모두. ID당 과금 모델 붕괴.

감사 전망 —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는 딱 3개만 남을 것**.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는 싹 다 망할 수도 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온다. † 4

사자 직업 대량 감원

- 사무직 + 회계사·법무사·변호사 = 큰 타격 - 의사 — 처방전 단순 업무는 빠른 대체. 한국은 면허로 보호되지만 미국은 보험사 권력으로 보호 X. **미국 먼저 → 한국에 시장 개방 압박** (트럼프 4.0~5.0 시대, 4~5년 뒤) † 3

AI 대체 국가 속도 순위 — 한국이 2위

가장 분명한 미래의 모습 — **GDP는 성장해도 대중은 궁핍해진다**. 기업이 돈 양창 벌고 사람을 다 잘라버리면 소비 줄어들고 경제 위축. 기계보다 비싼 인건비 직장 = 먼저 파괴됨.

순위	국가	이유
1위	미국	혁신 중심지 + 해고 자유
2위	한국	IT 적응 잘함, AI로 대체 쉬움
↓ 느림	일본	팩스 + 전통 방식 보존
↓ 느림	대만	TSMC 외 가내 수공업
↓ 느림	유럽	한 땀 한 땀 명품 + 관광 (혁신 늦은 게 역설적 보호)
↓ 느림	동남아·자원 부국	비정형 노동 + AI·로보틱스 수요 증가로 자원 가격 ↑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트리니 보고서에 안 나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배관공을 AI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 정형화된 일은 AI 가능하나 배관공은 집마다 배관이 달라 비정형. 자원 채굴도 비정형.

한국인 대비 방법 — 자본가가 되어라

AI 시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원칙: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AI에 의해 파괴되는 자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파괴하는 자 — AI 기업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박종훈의 경제로드맵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

- **자본 형성 시점** — 2028 이전 상당 부분 - **스스로 AI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 우선 투자 방향성, 그 다음 도태되지 않는 방법 - **미리 대비 = 기회 / 대비 안 함 = 위기**

경제로드맵은 바로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 앞으로 호흡하면서 AI 시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감사 마무리.

회차 자료 보강

본 회차(2026-03-09) 이후 약 2개월 시점(2026-05-15)까지 외부 출처 보강. 4 패러다임 — 권고 부속 X, 사실·정량만.

† 1 (시간 연장) — **이란 전쟁 후속, ceasefire 깨졌다 다시 + Brent \$101~114 변동** 강의 § 이란 전쟁 = 게임 체인저: 장기화 시 유가 120~150달러, 미국 구축함 6척만 가용. 보강 (CNBC + Al Jazeera + Fortune 2026-04-05) — **2026-04-08 첫 ceasefire** 후 5월 escalation 반복. **Brent 5월 초 \$114.44** (Project Freedom 발표 직전) → 5월 8일 \$101.29 안정. 미국 구축함 호위 (Project Freedom — destroyers 호위 **transit**). **호르무즈 2,000 vessels에 20,000 seafarers stranded**. 감사 인용 "구축함 6척만 가용"이 사실 검증. 장기화 우려 진행 중. (CNBC 2026-05-08, Al Jazeera 2026-05-05)

† 2 (각도 확장) — **Citrini 보고서 정확화 + Black Tuesday \$285B 시총 증발** 강의 § 시트리니 보고서: 신생 업체 보고서로 AI 공포 투매. 보강 (Citrini Research + Seeking Alpha + Stocktwits) — 정확 이름 **Citrini Research**, 2026-02-22 발표. **2026-02-24 "Black Tuesday" — S&P Software Index 1일 -13%, \$285B 시총 증발**. IBM 약 -13%. X 16M views, **Michael Burry 인용 "And you think I'm bearish"**. 시나리오 — 2028 6월 가정 메모 (실업률 10.2%, S&P -38%, 인도 IT 서비스 계약 취소, 루피 4개월 -18%). 감사 "신생 업체" 사실 정확. (Citrini 원문, Stocktwits Burry)

† 3 (검증·반박) — **AI 사무직 대체 학술 추정 풍부** 강의 § 사무직 대량 감원 확정. 검증 (WEF + Goldman Sachs + Anthropic + Microsoft) — **WEF: 92M displaced by 2030, 170M new = 순 +78M**. Goldman Sachs: 미국 6~7% workforce (~11M) AI 대체. Microsoft 2025: 5M white-collar jobs 위협. **Anthropic Dario Amodei: entry-level white-collar 절반이 5년 내 사라질 수 있음 + 두 자릿수 실업률**. 2026 Q1 미국 기술 layoffs 45,000건 중 20%가 AI 명시. McKinsey: 32% 기업이 1년 내 3%+ 인력 감축 예상. 감사 명제 "사무직 + 회계사·법무사·변호사 큰 타격" 정확 검증. 다만 WEF 순 +78M은 long-term offset 시사. (WEF Future of Jobs 2025, Goldman/Anthropic 인용)

† 4 (사태 후속) — **Microsoft Copilot pricing 모델 변형 진행** 강의 § 기업 SW 대체: "마이크로소프트 ID당 과금 모델 붕괴 가능성". 정확 정량 후속 (Microsoft pricing 2026) — Microsoft 365 Copilot Enterprise **\$30/user/month**, Business \$18~21. **2026-05-01 새 번들 출시 — Microsoft 365 E7 "Frontier Suite" \$99/user/month** (E5 + Copilot + Entra Suite + Agent 365 — 단순 ID당 + AI 번들). 단순 Office ID당 모델은 유지하되 AI는 추가 과금 → 단가 3배 인상. 강의 "ID당 과금 붕괴" 명제는 부분 진행 중 (붕괴 X, 모델 변형 O). (Microsoft 365 Copilot pricing, CNBC 2026-03-09)

ONE LINE

자본가가 되어라 —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2028 이전 자본 형성이 결정적 시점.

출처

박종훈의 지식한방 — Q&A 3월 2주차 (2026-03-09, parent: Part 3-1강).